

『 한국 근대화의 실험장 - 인천 구도심 』

지리교육과 2학년 장해진

☞ 답사포인트

- 현재 남아있는 조계지 경관을 찾아보자.
- 해외와 비교할 때 인천 차이나타운이 갖는 특성에 대해 찾아보자.
- 장소마케팅이 적용된 다른 사례를 알아보자.

인천구도심을 개항과 함께 인천의 중구청사와 근대의 양식 건축물들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건립되면서 이국적인 도시공간으로 장소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곳이다. 선린동, 중앙동, 관동, 송학동 일대는 1883년 개항이후 조계지로 설정되어 1914년까지 외국인 거류지로 이용된 지역으로 계획당시의 가로체계와 가구의 형태가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근대화의 실험장’, ‘길거리건축박물관’, ‘한국 근대역사의 거울’ 등으로 묘사되는 근대역사도시로서의 인천 구도심의 근대역사 환경은 세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1883년 개항 이후 인천 구도심은 수 십 년 동안 서구문물의 유행지였으며, 근대화교육의 선구지였으며, 서구열강의 각축장으로 한국 근대사의 중심·서양문물 유입의 길목이다. 둘째, 인천 구도심은 한국 최초철도의 기공지이며, 서구식 최초의 공원이 설치된 곳이고, 원조 자장면이 탄생하는 등 한국 최초·원조의 장이다. 셋째, 일본, 청을 비롯한 세계열강의 조계지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넷째, 청관거리, 흥예문 등 그 흔적만이 남아있는 차이나타운이 있다.

이러한 인천 구도심을 조계지역부터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장소마케팅으로 활용되는 모습과 슬럼화되는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조계지역

조계(租界)란 개항이 되면서 개항장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땅의 경계를 지칭한 것이다. 조계의 종류는 토지 취득방법에 따라 컨세션(concession)과 세틀먼트(settlement)로 구분했다. 컨세션은 토지를 외국 정부가 토지 소유 정부와 계약에 의해 차용, 다시 자국민에게 분할 대여하는 것이고, 세틀먼트는 외국인 개개인이 토지 소유자와 직접 계약에 의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인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적용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하다.

아시아에서는 일찍이 영국이 중국과 조계 계약을 맺고 1845년 상해에 외국인 조계를 설정한 것을 시작으로, 1858년에는 일본이 미·영·불 등 서구 5개 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도쿄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5개 지역에 조계를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1876년 부산항을 시작으로 1880년에 원산, 그리고 1883년에는 개항장인 인천 제물포에 일본인 조계를 비롯 청국 등 각국 조계가 설정되었다. 이 조계는 1914년까지 30여 년 간 지속되다 한일합방 후 모두 폐지됐다.

1) 일본인 조계

일본인조계는 현 자유공원 남쪽 언덕에서 해안에 이르는 관동 1, 2가와 중앙동 1, 2가 일대 약 7000평에 달하는 지역. 개항당시 348명에 불과했던 일본인들은 계속 증가, 1890년 말 경에는 4300명에 달했다. 따라서 조계지를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이, 노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결국 1898년에는 현 해안동 일대 4000여평을 매립, 그들의 거주지를 늘렸고, 이후에도 일본인들은 공동조계와 한국인 거주지까지 파고들면서 그들의 거주지를 확보 했다.

2) 청국 조계

청국조계는 일명 청관으로 불리던 지역으로 자유공원 서남쪽 가파른 언덕에서 현 선린동 일대 5000여평에 이르는 지역에 터를 잡았으나 일본조계처럼 현 내동경동지역에 청국 조계지를 더 확장했다. 당시 청관에는 중국인 거상들이 왕래하면서 번성을 누렸으나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하면서 청국인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철수하고 소수의 청국인들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해방과 동시에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일본인에 반해서 청국인들은 화교로 남아 한국과 중국 사이 무역의 핵심역할을 하며 해외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계지역이 아닌 차이나타운을 형성하여 문화를 지켜나가고자 하였다.

3) 공동 조계

공동조계는 미·영·청·독·일 등 5개 국이 1884년 10월 3일 조선정부와 제물포 조계장정협정을 맺으면서 생겨났다. 이 조계는 청국, 일본조계의 외곽 지역인 송월, 송학, 북성, 관동에 이르는 14만 여 평의 넓은 지역으로 각국의 외국인들이 거주했다.

2. 차이나타운

1) 120년 화교의 역사

우리나라에 화교 사회가 정식으로 형성된 것은 120여년 전인 18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오군란 당시 청(淸)은 조선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때 화상(화교상인) 40여명이 건너와 한국 화교의 시조가 됐다.

인천시 선린동 일대의 5,000평 부지에 중국 조계지가 세워지고 중국의 건축 방식을 본뜬 건물이 늘어나면서 최초의 차이나타운이 형성됐다. 서울과 인천을 근거지로 직물과 잡화, 피혁, 서구 상품을 수입해 팔고, 조선 토산품을 반출하는 상인들이 주류를 이뤘다.

서울과 인천에 흩어져 있던 화상들은 비단, 옷감, 면화, 양식, 고추, 마늘 등 각종 토산품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 한국의 전역으로 판매했다. 1923년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에 거주한 화교 수는 6,000명에 이르렀고, 40년간 중국으로 보낸 돈은 1,000만 엔(현재 100억 엔 규모)에 달했다.

해방 후 정치적 혼란기가 화상들의 전성기였다. 기존의 무역망을 활용한 화상 무역은 1946년 전체 수입총액의 82%, 48년에도 절반이상(52.5%)을 차지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화교사회의 호황은 1948년 한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막을 내리기 시작한다. 한국정부의 각종 제한과 차별 대우로 화교사회는 점차 위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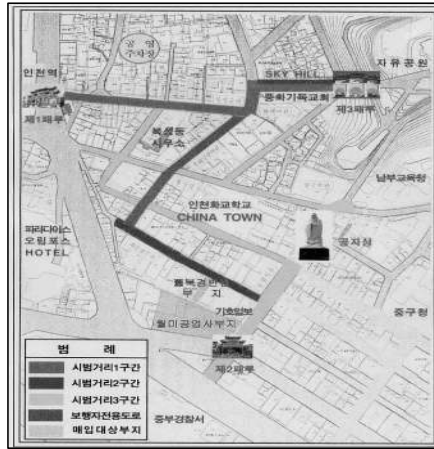
특히 1948년 수립된 이승만 정권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화교의 한국 유입은 종식됐다. 또 1949년 중국대륙에 들어선 모택동 정권은 이주 억제책을 실시해 1년에 한번 있던 한국 화교의 고향방문도 끊어졌다. 화교 무역의 배경이던 중국과의 교역이 불가능해지자 화교들은 토착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무역보다는 요식업위주로 생계 수단을 바꾸어 나갔다.

화교들의 고난은 그뿐만이 아니라. 자유당 정부가 한국전쟁 직전 전국에 내린 창고 봉쇄령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두 번의 화폐개혁으로 장롱에 든 현금은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말았다. 1961년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에 따라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많은 화교들은 승인을 얻지 못하고 싼값으로 토지를 내다팔았다. 또,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1970년)과 ‘외국인 출입관리법’ 등으로 화교들은 한국 정부의 정신적 물질적 차별대우를 견디다 못해 한국을 떠나 미국이나 호주, 대만 등지로도 많이 이주했다.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는 약 2600명 정도이고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인구는 500여명 정도이다.

2) 차이나타운의 현재 - 관광지로의 변화

해외의 차이나타운이 화교들이 밀집하여 그들 나름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고 그곳이 자연스럽게 관광지화 되어 가는데 반해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소수의 화교만이 살고 있어 그들 나름의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힘들었고 점점 쇠퇴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문제들과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방문자유화를 계기로 국내 유일의 인천차이나타운을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내·외국 관광객의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된 것이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이다.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선린동·항동 일원의 차이나타운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중국풍의 상가를 조성했다.



〈 차이나타운 시범구간 〉

출처: <http://www.ichinatown.or.kr>

하지만 정부주도로 목적을 가지고 복원된 현재의 차이나타운이 가지는 의미는 장소성 뿐이다. 상점을 중국풍으로 꾸미고 벽을 붉게 칠하고 축제를 한다고 해서 무역거래가 활발했던 옛 차이나타운으로 되돌리기는 힘들다. 화교들과 발전을 도모하고 그들과 우리 모두 상생할수 있는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한국인을 위한 관광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화교들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이나 의식 때문에 외국 처럼 큰 관광지가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3) 장소마케팅으로 보는 차이나타운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은 장소를 그 정체성과 가치를 설계하고 팔아야 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는 접근으로 기업가적 성질이나 관념을 내포한다. 개념 규정은 장소마케팅이나 도시마케팅의 용어형태로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장소마케팅이란 '장소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일련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으로,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



〈 차이나타운 〉

한 장소의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기업가(투자자)와 관광객, 심지어는 지역주민들에게까지 그 장소를 관측하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구도심에서 장소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일본조계지의 건축물과 자장면, 축제 등이다.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으로 정비된 차이나타운 거리에는 자장면이 처음 탄생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공화춘 건물과 1920년대에 건설된 주상복합건물인 대창반점,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가 무상 기증한 3개의 페루가 있어 이곳이 차이나타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장면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먹어보았을 음식이며 화교들이 만든 요리이지만 한국에만 있는 요리이다. 이러한 자장면이 처음 탄생한 공화춘이 있는 차이나타운은 그 의미가 크며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가치도 높다. 그리고 인천-중국의 날문화축제를 통해 이색문화체험 및 중국자매우호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민속공연단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3. 구도심 재생사업

지난 30여년 동안 면적 및 인구 등 도시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도시의 확장과 도시 공간 개편에 따라 구도심은 그 도시기능을 상실하여 정체와 퇴락의 길을 걷고 있다. 다시 말해, 근대역사 도시로서의 독특한 장소성을 상실하고 공업기능이 침체되었으며, 시가지가 노후화 되었고,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상주인구가 감소되고 도시환경이 슬럼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신구도심간의 교육, 문화, 생활 등의 불균형한 성장으로 인해 구도심 주민의 박탈감 및 괴리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도심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가정뉴타운'이다. 인천시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이곳 97만4000㎡를 2013년까지 아파트 및 주상복합 등 주택 1만 1000여 가구와 금융타운 등 오피스 빌딩, 레저, 의료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뉴타운 내 가정오거리 중심상업지역 지하에는 경인고속도로 직선구간(서인천나들목~청라지구)이 개설돼 상업지역과 연결된다.

남구 도화동 인천대학 부지 및 인근 지역 87만8000㎡를 새로운 시가지로 개발하는 '도화지구'도 주목된다. 이곳에는 2012년까지 총 6849가구의 공동주택이 지어져 1만8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공장과 주거지역이 완충지역 없이 섞여 있는 경인전철 동인천역과 인천역 주변도 개발된다. 동인천역 인근 29만㎡와 인천역 인근 44만㎡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역세권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4. 끝맺음

지금까지 근대 인천 구도심의 역사와 장소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근대 한국이 겪었던 개방과 변화의 압박을 정면으로 받아내었던 인천. 관문도시와 수송적 환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때문에 침략의 거점이었지만,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이다. 국제공항, 인천항의 기반시설위에 경제자유구역이 건설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구도심도 허름한 옛 조계지의 이국적인 경관들을 재정비하고 신도심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구도심 재생사업도 함께 진행되어 다시금 경제자유구역과 연계되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생각해보기

- 화교들이 차이나타운을 떠난 이유를 볼 때 해외의 차이나타운처럼 그 지역 관광의 중심지가 되고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번성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생각해보자.

〈 참고문헌 〉

- 심진범, 김돈호 / 2002 / 인천시 구도심 장소마케팅 전략 연구 / 인천발전연구원
- 강덕희, 김기호 / 2002 / 인천 중구 조계지의 도시조직 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도시설계학회
- 최원구 / 2003 / 구도심 재생의 필요성 및 재원조달방안 / 인천발전연구원
- 최선영, 이진원 / 2005 / 구도심 재생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
- 이영민 / 2001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장소의 역사·지리적 의미의 재구성 -인천 구도심지를 사례로-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 인천광역시 / 2003 / 굿모인 인천

〈 참고사이트 〉

- 여행신문 <http://www.traveltimes.co.kr>
- 인터넷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 주간한국 <http://www.koreatimes.co.kr>
- 인천광역시 중구청 <http://junggu.incheon.kr>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